KEF 경총
KOREA ENTERPRISES FEDERATION

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

2023. 3.

< 조사개요 >

※ 「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0인 이상 1,019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㈜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.

〈 요 약 〉

1 [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] 응답 기업의 60.2%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'전년과 유사할 것'으로 전망하였고, 그 이유(복수응답)로 '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'(46.5%)을 가장 높게 응답

- 2023 기업규제 환경에 대해 응답 기업의 60.2%는 '전년과 유사할 것'으로 전망함. 그 이유(복수응답)로 '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'(46.5%), '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'(25.1%) 순 집계

2 [규제개혁 정책]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(복수응답)은 「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」 (35.0%)

- 그 다음으로 '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'(23.6%), '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'(20.2%), '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'(16.4%) 순으로 나타남.

3 [노동개혁]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(복수응답)으로 「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」(36.1%)를 가장 높게 선택

- 그 밖에 '노사정간 신뢰와 대화'(27.3%), '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'(26.9%) 순으로 집계됨.

4 [규제 이슈별 평가] 2023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분석됨.

- 기업 부담지수*가 가장 높은 규제 이슈는 '중대재해처벌법'(3.48)이었고, 그 다음으로 '근로시간제도'(3.38), '최저임금제도'(3.37) 순으로 집계됨.

  * 1점(부담 없음)부터 5점(매우 부담)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

5 [규제 개선 의지 평가] 주체별 규제 개선 의지 평가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점수 높아

- 주체별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의지를 점수*로 평가(5점 만점)시 중앙정부(2.89점)가 지방정부(2.79점)보다 높게 집계됨.

  * 1점(매우 약함)부터 5점(매우 강함)까지 점수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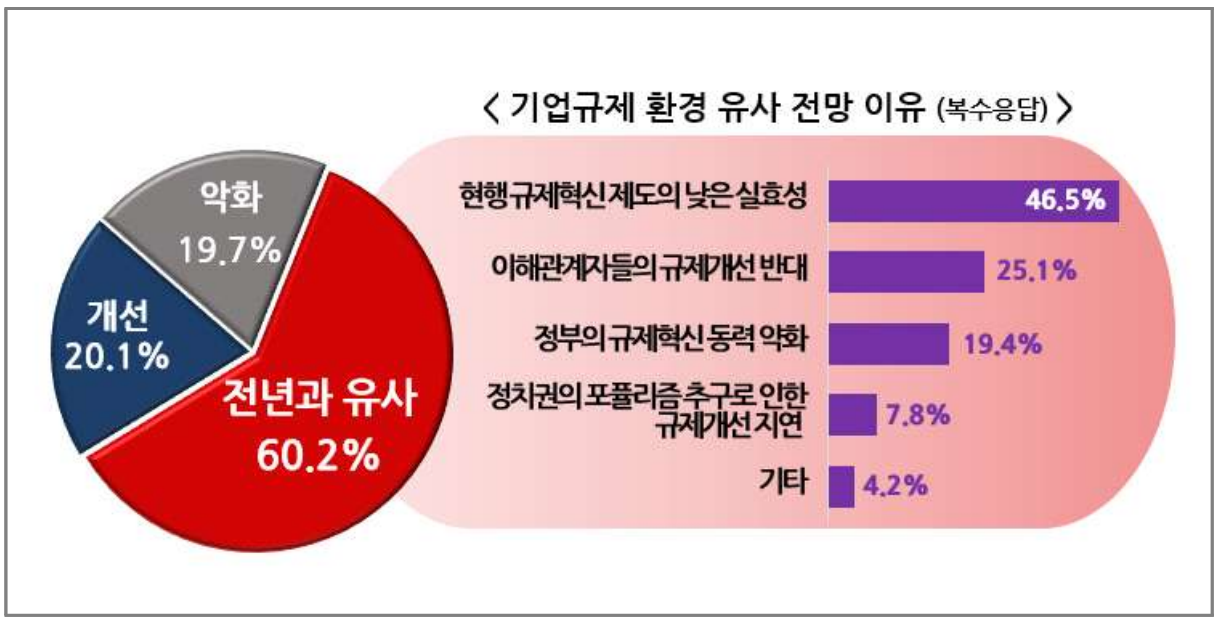
1 2023년 기업규제 환경 「전년과 유사할 것」(60.2%) 그 이유는 '현 제도의 낮은 실효성'(46.5%)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0인 이상 1,019개 기업(응답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「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 기업의 과반수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'전년과 유사할 것'으로 전망

○ 응답 기업의 60.2%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'전년과 유사할 것'으로 전망함. '개선될 것'(20.1%)이라는 응답과 '악화될 것'(19.7%)이라는 응답은 근소한 차이(0.4%p)를 보임.

○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(복수응답)로는 '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'(46.5%), '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'(25.1%) 순으로 답변

[그림 1. 2023년 기업규제 환경 전망 및 이유]



2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「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」(35.0%)

□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(복수응답)으로 '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'(35.0%)을 가장 높게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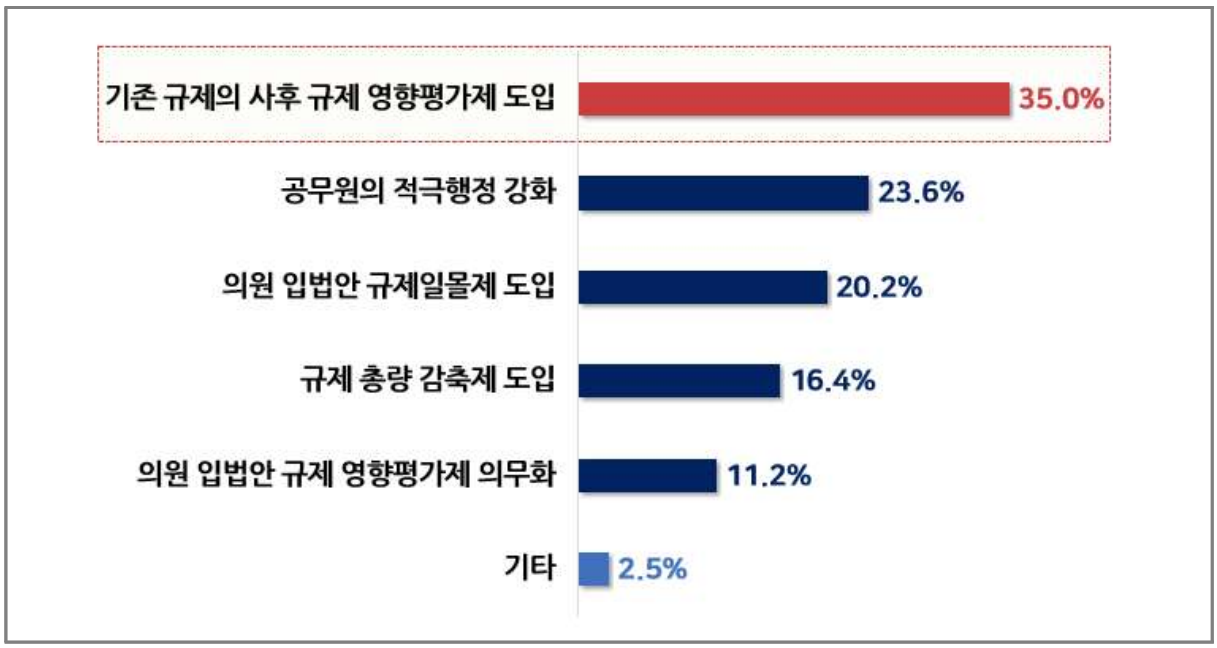
※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·타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'사후규제영향평가제' 도입 추진 중('22.12.29)

○ 그 다음으로 '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'(23.6%), '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*' 도입'(20.2%), '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'(16.4%) 순으로 나타남.

*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폐지·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의원 입법안에는 미적용

※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'국회법 개정안' 국회 계류 중

[그림 2.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 (복수응답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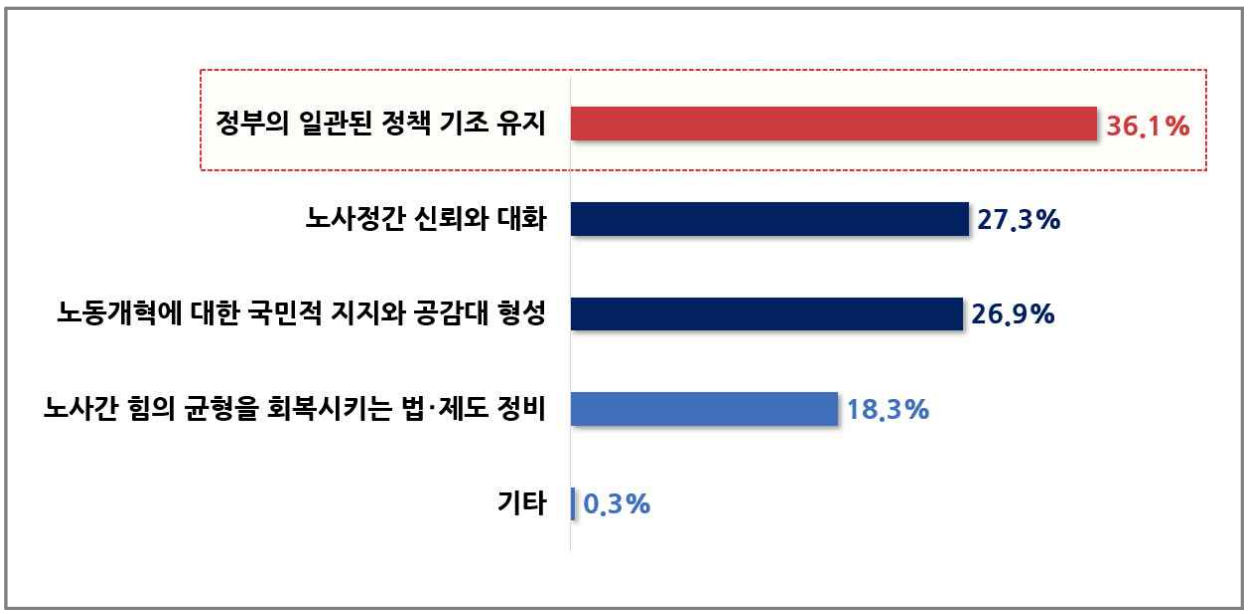


3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은 「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」(36.1%)

□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(복수응답)으로 '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'(36.1%)를 가장 높게 선택하여 지속적인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.

○ 그 다음으로 '노사정간 신뢰와 대화'(27.3%), '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'(26.9%) 순으로 집계됨.

[그림 3.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(복수응답)]



4 2023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지수 1위

□ 12개의 규제 이슈*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(5점 척도)가 가장 높은 규제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(3.48)으로 분석됨.

* ① 중대재해처벌법, ② 근로시간(주52시간제 등), ③ 최저임금, ④ 환경규제(탄소중립), ⑤ 법인세, ⑥ 상속세, ⑦ 개인정보보호, ⑧ 지배구조규제(의결권 제한 등), ⑨ 공정거래 규제(사익편취 규제 등), ⑩ 기술규제(국가별 인증, 기술장벽), ⑪ 자금조달(대출심사 강화, 금리 인상), ⑫ 입지규제

※ 기업 부담지수란, 1점(부담 없음)부터 5점(매우 부담)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수치

○ 그 다음으로 「근로시간(주52시간제 등)」(3.38), 「최저임금」(3.37) 순으로 높게 집계됨.

〈 표 1. 2023년 규제 이슈별 기업 부담지수(5점 척도) 〉

규제 이슈	중대재해처벌법	근로시간	최저임금	법인세	자금조달	환경규제
기업 부담지수	3.48	3.38	3.37	3.20	3.17	3.15
규제 이슈	상속세	개인정보보호	공정거래규제	지배구조규제	기술규제	입지규제
기업 부담지수	3.14	3.13	3.10	3.08	3.05	3.03

□ 업종별로 분석하면 12개 중 7개 업종에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은 전체 12개 중 5개 업종(가전, 기계, 금융, 유통, 플랫폼 서비스)을 제외한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규제로 분석됨.

〈 표 2. 2023년 업종별 가장 기업 부담이 큰 규제 이슈 〉

업종	반도체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	철강	정유·석유화학	가전	기계
규제 이슈	중대재해처벌법	중대재해처벌법	중대재해처벌법	중대재해처벌법	근로시간	최저임금
업종	조선·해운	금융	제약·바이오	건설	유통	플랫폼서비스
규제 이슈	중대재해처벌법	개인정보보호	중대재해처벌법	중대재해처벌법	자금조달	근로시간

5 규제개선 의지 평가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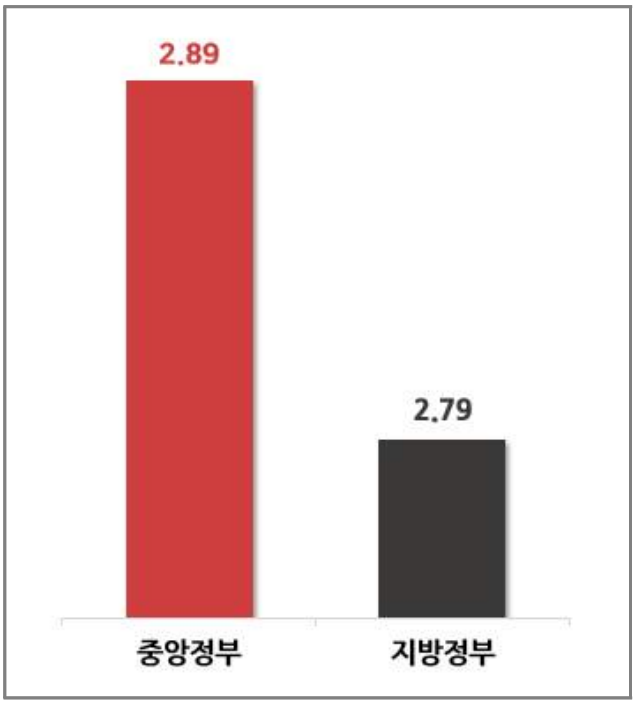
□ 주체별 규제개선 의지를 점수*로 평가(5점 만점)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

*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의지를 1점(매우 약함)부터 5점(매우 강함)까지 점수로 평가

○ 응답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의지를 2.89점으로 평가한 반면, 지방정부는 2.79점으로 중앙정부보다 낮게 평가함.

※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전략회의, 규제혁신추진단,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신설하여 규제개선 추진 중

[그림 4.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의지 평가]



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○ 본 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2023년 기업규제 환경 전망 및 주요 이슈별 규제 부담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○ 전국 50인 이상 12개 업종별 기업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1,019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※ 조사수행기관 : ㈜모노리서치

3. 조사기간 : 2023년 1월 2일 ~ 2월 3일

4. 조사방법

○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, 팩스, 이메일 조사

5. 표본오차

○ 95%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± 3.1%p

6. 주요 조사항목

○ 2023년 기업규제 환경 전망

○ 규제 이슈별 기업 부담지수,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평가 등

7. 회수업체 수

구분		회수업체 수
전체		1,019개사 (100.0%)
규모별	300인 이상 기업	316개사 (31.0%)
	50~300인 미만 기업	703개사 (69.0%)